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2000년 이후 국내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홍 정 숙*

대구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에 대한 국내 전문학술지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이 주제에 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특수교육 관련 학술지와 일부 직업재활 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관련 논문 총 51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들은 연도별·학술지별,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대상 유형 및 연구대상 수, 학교급별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2000년부터 관련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지적장애연구 학술지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주제는 실태 및 개선방향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고,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가 그 뒤를 이었으며, 연구대상은 교사와 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별 유형 분석에서는 전공과와 고등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 관련 연구방향 등과 연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 동향 분석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jshong@daegu.ac.kr)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학부모의 요구, 현실적인 여건 등에 따라 높은 비율의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다. 201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학교 환경에 70.4%(특수학급 52.6%, 일반학급 17.8%), 특수학교 29%, 특수교육지원센터 0.6%로 분포하고 있다(교육부, 2014). 이와 같이 일반학교 환경에서의 배치 비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특수학교도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며 여전히 대표적인 특수교육환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승희(2001)는 통합교육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특수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제와 제후되지 못하고 특수학교가 분리환경이라는 제약점만 부각된다면,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의 발전과제에서 소외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 상황에서도 이러한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궁극적으로 통합된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독립된 생활을 누리면서 자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과중심 교육은 특수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제 중 핵심 과제라 할 수 있겠고, 구체적으로는 최근 특수교육에서 장애학생 전환교육의 주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송소현, 유애란, 2011). 미국에서 전환교육의 개념이 대두된 것은 1980년대 중반 경이며(Will, 1986), 우리나라에서는 '전환교육'이라는 용어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소개되었다. 이와 함께 모든 장애학생의 교육목표는 고등학교 졸업 후의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설정되어야 한다는 전환교육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조인수, 전보성, 2007). 특수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장애인은 사회에서 직업, 거주, 여가 등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완화시켜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으로 전환교육이 필요하며, 학생 개개인의 작업기능과 직장 적응능력에 의존하기보다 졸업 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서부터 전환교육을 실시하여 장애학생의 지역사회통합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황보순, 강민채, 곽승철, 2008).

한편 우리나라의 전환교육에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이 지적장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의 특성 상 지적장애는 다른 어떤 장애 영역보다 성인기 삶을 의식한 조기부터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전환교육의 필요성이 높다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특수학교 167개교 중 지적장애 특수학교는 113개교로, 시각장애 12개교, 청각장애 15개교, 지체장애 20개교, 정서장애 7개교(교육부, 2015)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에 관해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수학교의 발전과제와도 밀접히 연관되며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의를 확장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최근 10여 년 간의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 연구 동향은 어떠한지를 밝히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선행연구로는 송소현, 유애란(2011)과 조인수, 전보성(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송소현, 유애란(2011)과는 분석시기와 그 대상이 다르고, 본 연구에서는 초점을 지적장애 특수학교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조인수, 전보성(2007)과는 분석 시기와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조인수, 전보성(2007)의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학위논문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학술지 논문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전환교육이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조인수, 전보성, 2007)는 점을 감안하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를 분석시기로 삼은 조인수, 전보성(2007)의 연구 시점에서는 충분한 전환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물에는 단행본, 학위 논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학술지는 학문의 연구동향을 가장 집약적이고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물(김남진, 박재국, 2007)이라는 점과 전환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축적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보다 심화된 논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리라 본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 관련 논문들을 연도별·학술지별,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대상 유형 및 연구대상 수, 학교급별 유형 별로 분석하고, 다음으로 이 분석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 관련 연구방향 등과 관련하여 논의함으로써 특수학교 현장에서 지적장애학생의 질 높은 전환교육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분석논문의 선정 기준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과 관련된 논문 51편을 선정하였다.

첫째, 논문의 제목이나 주제어에 직업교육, 전환교육, 진로·직업교육 등의 용어가 제시되어 있거나 논문에서 연구자 자신이 본인의 연구주제가 전환교육과

39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4호)

관련되는 연구임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는 연구를 포함시켰다. 둘째, 지적장애 특수학교 초·중·고·전공과 학생과 관련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환교육 관련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외시켰다. 셋째,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 관련 문헌연구는 분석대상 논문에 포함시켰다. 넷째, 최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로 시기를 한정하였다. 다섯째, 2015년 기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2. 분석논문의 수집 및 선정

이와 같은 선정기준을 토대로 2015년 기준 특수교육분야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표 1〉 참조) 중, 「지적장애연구」, 「특수교육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특수교육」, 「특수교육학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학술지를 발간하는 기관이나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원문서비스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각 호별 논문제목과 요약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제목과 요약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논문은 정독을 통해 총 45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표 1〉 특수교육 분야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목록

연번	구분	학술지명	등재후보 선정연도	등재 선정연도
1	등재	특수교육연구	2004	2010
2	등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2004	2007
3	등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003	2006
4	등재	특수교육	2008	2012
5	등재	유아특수교육연구	2005	2008
6	등재	자폐성장장애연구	2009	2012
7	등재	정서·행동장애연구	2000	2003
8	등재	지적장애연구	2005	2008
9	등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2004	2007
10	등재	특수교육학연구	2001	2004
11	등재	특수아동교육연구	2004	2008
12	등재	학습장애연구	2008	2011
13	등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998	2001
14	등재후보	통합교육연구	2009	-
15	등재후보	발달장애연구	2012	-

다음으로는 주요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의 소장 자료 검색서비스에서 '정신지체 특수학교',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 '진로교육', '직업교육', '진로·직업교육', '전환', '직업', '진로'의 각 키워드를 상호 결합하여 검색하였으며, 전술한 논문원문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이미 선정된 논문과 중복되는 논문을 제외하고, 분석논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논문 6편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이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직업재활연구」, 「장애와 고용」, 「재활복지」로, 2015년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이다.

마지막으로 검색한 논문의 참고문헌에서 분석대상이 될 수 있는 논문을 역으로 추적하여 조사하였으나 학술지 논문으로 추가할 논문이 없어, 최종적으로 총 51편의 등재학술지 논문을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3. 분석 기준

1) 학술지

2015년 기준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중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 관련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2) 연구주제

최종 선정된 51편의 논문들의 제목과 요약뿐만 아니라 연구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교수방법, 실태 및 개선방향, 인식(수준), 원리, 평가, 교육과정의 6가지 연구 주제로 분류하였다. 분석대상 논문 중에 하나의 논문이 하나 이상의 차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논문의 중심 주제와 가장 관련이 높다고 판단되는 한 가지 차원에 분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정은혜, 2014).

3) 연구방법

각 연구 주제별로 교육연구 방법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연구는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관찰연구, 질적연구(성태제, 2007)로, 일부 동향연구(이숙향, 2010; 송소현, 유애란, 2011)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나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방법을 살펴본 결과, 관찰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분류 기준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찰연구를 제외한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질적연구,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타는 연구방법 분석 기준의 특정 유형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이다.

4) 연구대상 유형 및 연구대상 수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 연구들의 연구 대상은 학생, 교사, 학부모,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 수는 분석 논문의 검토를 거쳐 1-10인, 11-30인, 31-70인, 71-100인, 101-200인, 201-35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문헌연구(박희찬, 2010; 임예지, 김호연, 2012)의 경우, 연구대상 유형 및 연구대상 수에서는 그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5) 학교급별 유형

분석논문이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별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초등부+중등부, 중등부+고등부, 고등부+전공과, 중등부+고등부+전공과, 중등 이상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중등 이상은 논문에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거나 중등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학교급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나 중등 이상으로 분류한 논문 또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졸업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유형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중등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한 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 학교급이 중복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 빈도 처리하였다.

4. 분석의 신뢰도 확보

분석자간 신뢰도는 본 연구자와 특수교육과 박사과정생 1명이 최종 선정된 총 51편의 논문을 앞서 제시된 분석기준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한 뒤 신뢰도 산출 공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각 기준에 대하여 산출된 신뢰도의 범위는 90~100%였으며, 평균 신뢰도는 97.6%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분석자간 불일치를 보인 분석 내용은 논의를 통하여 조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최근 10여 년간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 관련 논문 총 51편을 연도별·학술지별,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대상 유형 및 연구대상 수, 학교급별 유형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도별·학술지별 분석 결과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 관련 총 51편의 논문을 연도별·학술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부터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2005년에 7편(13.73%)의 연구가 이루어져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학술지는 「지적장애연구」에 16편(31.37%)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고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편(19.61%), 「특수교육학연구」 7편(13.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학술지별 분석 결과

	지적장애연구*	특수교육학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특수교육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특수교육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직업재활연구	장애와교육	재활복지	계	백분율
2000	2										2	3.92
2001		1	1								2	3.92
2002	1										1	1.96
2003		1		1							2	3.92
2004	1	1	1	1				1			5	9.80
2005	1		3	1	1			1			7	13.73
2006	3										3	5.88
2007	2		1					1			4	7.84
2008		1						1			2	3.92
2009	2		1		1						4	7.84
2010	1				1		1				3	5.88
2011	2	1			1	1					5	9.80
2012		2	2						1		5	9.80
2013										1	1	1.96
2014	1		1	1			2				5	9.80
계	16	7	10	4	4	1	3	4	1	1	51	-
백분율	31.37	13.73	19.61	7.84	7.84	1.96	5.88	7.85	1.96	1.96	100	-

* 2000~2007년은 학술지의 명칭이 「정신지체연구」였으나 「지적장애연구」로 일괄하여 표기하였음.

2. 연구방법 분석결과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 방법별 분석 결과, 조사연구가 22편(43.14%)으로 가장 많았고, 실험연구 15편(29.41%), 혼합연구 5편(9.81%), 질적연구 3편(5.88%), 문헌연구 2편(3.92%), 기타 4편(9.81%)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 방법 동향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기타	계	백분율
2000			1	1			2	3.92
2001		1	1				2	3.92
2002			1				1	1.96
2003		1	1				2	3.92
2004		2	2			1	5	9.80
2005		3	1			3	7	13.73
2006		3					3	5.88
2007		3	1				4	7.84
2008		1	1				2	3.92
2009		3	1	1			5	9.80
2010	1	1					2	3.92
2011		1	2	1	1		5	9.80
2012	1	1	3				5	9.80
2013					1		1	1.96
2014		2			3		5	9.80
계	2	22	15	3	5	4	51	-
백분율	3.92	43.14	29.41	5.88	9.81	7.84	100	-

3. 연구주제 분석결과

연구주제는 교수방법, 실태 및 개선방향, 인식(수준), 원리, 평가, 교육과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주제 분석결과

	교수방법	실태 및 개선방향	인식 (수준)	원리	평가	교육과정	계	백분율
2000	1	1					2	3.92
2001	1	1					2	3.92
2002	1						1	1.96
2003	1		1				2	3.92
2004	2	1	1		1		5	9.80
2005	1	1	2	3			7	13.73
2006		3					3	5.88
2007	1	3					4	7.84
2008	1	1					2	3.92
2009	1	1	2		1		5	9.80
2010			1			1	2	3.92
2011	2	1	1		1		5	9.80
2012	3		1			1	5	9.80
2013			1				1	1.96
2014		4	1				5	9.80
계	15	17	11	3	3	2	51	-
백분율	29.41	33.34	21.57	5.88	5.88	3.92	100	-

연구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실태 및 개선방향 관련 연구가 17편(33.34%)으로 가장 많았고, 교수방법이 15편(29.41%), 인식(수준) 11편(21.57%), 원리와 평가가 각각 3편(5.88%), 교육과정이 2편(3.92%)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태 및 개선방향, 교수방법, 인식(수준)에 대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태 및 개선방향 관련 논문은 질적연구 2편(송정은, 2000; 임지혜, 한경근, 2009) 이외에는 모두 조사연구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주제는 직업교육, 현장실습, 교육과정, 여가교육, 직업특수교사양성, 직업교과서 활용, 가족참여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교수방법 관련 논문은 15편 모두 실험연구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11편은 통제집단 사전사후 연구였고 4편은 단일대상연구였다(김영준, 강영숙, 2012; 김창호, 2012; 김창호, 백은희, 2011; 정윤지, 백은희, 2012). 교수방법의 유형은 생활중심 전환교육활동, 여가중심 전환교육활동, 자기결정학습모형, 원예활동 프로그램, 산학협력 중심의 직업교육 등이었고 교수목표는 주로 직업수행능력과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을 키우는 것에 있었다.

인식(수준) 관련 논문은 연구방법이 모두 조사연구로 이루어졌으나 박영근, 조인수, Hosp(2013)의 논문은 예외적으로 심층면담을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연구와 병행한 혼합연구로 이루어졌다. 인식 또는 인식수준을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교사 또는 부모의 전환계획과 자기결정력, 현장실습훈련과 직업교육에 대한 주제를 다루거나 직업담당교사의 직무만족도, 전환교육 수행능력, 전환사정, 지원고용, 결과중심전환교육 최상의 실천사항에 대한 인식수준, 취업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주요기술 관련 특수교사 인식, 직업교사의 전문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4. 연구대상 유형 및 연구대상 수 분석결과

연구대상 유형에서는 문헌연구 2개를 제외하고 총 49개의 논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과 같다. 연구대상 유형에서는 교사가 33편(64.71%)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16편(31.37%)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기타 2편(3.92%)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 2편(3.92%)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이 교사인 경우에는 실태 또는 인식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학부모인 경우에도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학생인 경우에는 방법에 대한 내용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표 5> 연구대상 유형(중복빈도처리) (N=49개)

	학생	교사	학부모	계	백분율
2000	1	1		2	3.92
2001	1	1		2	3.92
2002	1			1	1.96
2003	1	1	1	3	5.88
2004	3	1	1	5	9.80
2005	1	6		7	13.73
2006		3		3	5.88
2007	1	3		4	7.85
2008	1	1		2	3.92
2009	1	4		5	9.80
2010		1		1	1.96
2011	2	4		6	11.77
2012	3	1		4	7.85
2013		1		1	1.96
2014		5		5	9.80
계	16	33	2	51	100
백분율	31.37	64.71	3.92	100	-
케이스 백분율	32.65	67.35	4.08	104.08	-

연구대상 수는 1-10인, 11-30인, 31-70인, 71-100인, 101-200인, 201-350인으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연구대상 수의 분석 또한 연구대상 유형과 같이 문헌연구 2개를 제외하고 총 49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수 분석 결과는 1-10인을 연구한 논문이 12편(24.49%)으로 가장 많았고, 71-100인을 연구한 논문이 9편(18.37%), 31-70인 8편(16.30%), 101-200인, 201-350인 각각 7편(14.30%), 11-30인 6편(12.24%)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와 질적연구는 1-10인, 11-30인에 대부분 분포하였고, 31-70인과의 그 이상의 연구대상 수에서는 주로 조사연구가 분포하였다.

<표 6> 연구대상 수 (N=49개)

	1-10인	11-30인	31-70인	71-100인	101-200인	201-350인	계	백분율
2000	1	1					2	4.08
2001		1		1			2	4.08
2002		1					1	2.04
2003				2			2	4.08
2004	1		2	1	1		5	10.20
2005	3		1	2	1		7	14.29
2006	1		2				3	6.12
2007			1	2		1	4	7.84
2008		1				1	2	4.08
2009	1	1	1		1	1	5	10.20
2010						1	1	2.04
2011	2		1		1	1	5	10.20
2012	3					1	4	7.84
2013				1			1	2.04
2014		1			3	1	5	10.20
계	12	6	8	9	7	7	49	-
백분율	24.49	12.24	16.30	18.37	14.30	14.30	100	-

5. 학교급별 유형 분석결과

학교급별 유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중등 이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연구대상 유형 및 수의 분석과 동일하게 문헌연구 2개를 제외하고 총 49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표 7〉 학교급별 유형(중복빈도처리) (N=49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공과	중등 이상	계	백분율
2000				1	1	2	2.70
2001				2		2	2.70
2002			1			1	1.35
2003		1	2	1		4	5.41
2004		1	4	2		7	9.46
2005		1	2	2	4	9	12.16
2006		1	2	2		5	6.76
2007	2	3	2	1		8	10.81
2008				2		2	2.70
2009	1	1	2	3	1	8	10.81
2010				1		1	1.35
2011		1	3	2	1	7	9.46
2012		2	1	3		6	8.11
2013		1	1	1		3	4.05
2014		2	2	3	2	9	12.16
계	3	14	22	26	9	74	-
백분율	4.05	18.92	29.73	35.14	12.16	100	-
케이스 백분율	6.12	28.57	44.90	53.06	18.37	151.02	-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에 관한 논문에서 학교급별 유형 분석 결과는 전공과가 26편(53.06%)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부 22편(44.90%), 중등부 14편(28.57%), 중등 이상 9편(18.37%), 초등부 3편(6.12%)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에 관련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발간된 국내 학술지 논문 중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 관련 연구를 선정하여 연도별·학술지별,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대상 유형 및 연구대상 수, 학교급별 유형 별로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틀을 토대로 연구논문들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앞으로의 국내 연구방향과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논의

1) 연도별·학술지별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 관련 논문의 출판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2005년에 13.7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000년부터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이루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적장애 특수학교 환경에서 전환교육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의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연구들은 전환교육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였고 2005년도 이후부터 최고조에 달했다는 송소현, 유에란(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학술지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연구」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해당 장애 영역의 학술지인 점에 비춰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러나 특수교육 관련 전체 장애 영역을 아우르는 학술지에서도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 논문이 꾸준히 게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전환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우리나라 전환교육에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이 지적장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측면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직업재활 및 고용 관련 학술지에서도 지적장애 학생의 전환교육 주제를 일부 다루고 있는 것은 전환교육이 특수교육 영역에만 머무르는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며 지적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겠다.

2) 연구방법별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

연구방법의 분석 결과,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조사연구(43.14%)와 실험연구(29.41%)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조사연구는 성태제(2007)에 따르면, 현재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지니며 질문을 통하여 현상을 파악하는 연구로서 교육연구에서는 교육 현상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 논문 중에서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향이나 이와 관련한 인식(수준)을 밝히는 연구에서는 대부분 조사연구를 활용하고 있었다. 조사연구 다음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연구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파악하기보다는 그러한 현상들 간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성태제, 2007)로, 연구결과 교수 방법에 관한 주제는 모두 실험연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질적연구는 3편(5.88%)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3편의 연구를 살펴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질적연구는 조사연구나 실험연구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장의 심층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질적연구를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더 나아가 3편의 연구가 모두 면담법을 활용한 점에 비춰 다양한 유형의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편 최근 들어 혼합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인문사회과학에서 정성연구방법과 정량연구방법 모두 발달하고 그 적합성이 인정되면서 두 가지 자료수집 방법을 모두 사용한 혼합연구방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Creswell, 2010). 본 연구에서는 설문과 심층면담을 활용한 이진주, 홍정숙(2011)의 연구를 혼합연구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저자가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박영근, 조인수, Hosp(2013)을 비롯한 일련의 연구(박영근, Hosp, 2014; 박영근, 2014; 박영근, 박경란, 2014)에 나타나 있다. 혼합연구는 비록 소수 이기는 하나 유사하거나 동일한 연구문제에 대해 양적 및 질적 접근 방법 각각의 문제의식, 자료수집, 자료 분석들을 진행하여 상호보완적인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답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라는 점(박영근, Hosp, 2013)에서, 지금까지 주로 조사연구와 같이 단일한 방법에 의존해 연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연구유형에 있어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러한 연구방법 이외에도 관찰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의 확장이 요구된다.

3) 연구주제별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

연구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실태 및 개선방향 관련 연구가 17편(33.34%)으로 가장 많았고, 교수방법이 15편(29.41%), 인식(수준) 11편(21.57%), 원리와 평가가 각각 3편(5.88%), 교육과정이 2편(3.92%)으로 나타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송소현, 유애란(2011)의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에 있어서 이론적·실천적 모델 개발, 적용효과 등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를 본 연구 결과에 적용해 보면,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모델 개발은 박희찬, 정민호(2005a; 2005b; 박희찬, 정민호, 김기석, 2005)에 의해 일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연계에 관한 정책적인 요구가 오랫동안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에서, 지적장애학생의 특성과 지적장애 특수학교 환경, 지역사회 환경을 고려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가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그 연구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한편 적용효과에 관련된 주제의 연구는 실험연구의 높은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전환교육과 유사한 맥락에서 진로·직업 교육을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용

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교수방법 주제의 교수목표가 주로 직업수행능력과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을 키우는 것에 있었다는 점은 연구자들이 이 법의 취지에 따른 연구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직업재활훈련의 세부 항목을 살펴볼 때 대부분의 연구가 전반적인 직업교육에 편중되어 있고 직업평가 1편, 고용지원 1편, 그리고 사후 관리에 초점을 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영역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전환교육의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실태 및 개선방향 관련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교육 또는 전환교육의 전반적인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고(9편), 그 밖에 현장실습(2편), 교육과정(2편), 여가교육(1편), 직업특수교사양성(1편), 가족참여(1편), 직업교과서(1편)의 실태 및 개선방향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는 전반적인 실태나 개선방향, 인식(수준)에 대한 연구에서 도출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전환교육을 위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많은 논문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오영석, 이윤우, 박원희(2008)의 연구는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로 산학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전환교육이 학생의 진보와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목표 설정과 평가의 과정인 점을 감안하여 직업평가를 비롯한 학생의 평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진학, 취업, 평생교육, 여가, 독립생활 및 지역사회, 고등교육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환교육의 영역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4) 연구대상 유형 및 연구대상 수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

연구대상 유형의 결과를 보면 교사가 33편(64.71%)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16편(31.37%)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학부모와 기타는 각각 2편(3.92%)으로 나타났다. 전환교육은 교사 한 사람의 노력이나 계획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므로 전환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협력하고 서로 조정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조분래, 2006). 특히 지적장애학생들을 위한 전환교육 과정에서는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전환교육과 그들의 삶 전반을 통한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 수행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부모들은 지속적인 안내자가 될 필요가 있다(박영근, 박경란, 2014).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편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김진호, 2004; 박성우, 김창호, 2003) 중에서도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한 편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김진호, 2004). 물론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성우, 김창호, 2003)는 두 주체들 간의 관점을 서로 비교하고 이에 따라 두 관점 사이의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더 나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김우리, 연준모, 고희정, 2014)이므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일 대상이든 중복 대상이든 장애학생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더 나아가 전환교육에 관한 연구대상이 주로 교사와 학생 일변도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과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또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 수와 관련하여 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규칙은 없으며, 연구방법, 종류, 연구 가능성, 자료 수집 비용, 연구대상의 손실 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성태제, 2007).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 수 분석 결과는 실험연구와 질적 연구는 1~10인, 11~30인에 대부분 분포하였고, 31~70인과 그 이상의 연구대상 수에서는 주로 조사연구가 분포하였다. 조사연구의 경우 2007년 이후 연구대상 수를 늘려 201~350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특징을 보였다.

5) 학교급별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

학교급별 유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고등부(44.90%)와 전공과(53.06%) 환경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과와 고등부가 학교에서 성인기 생활로의 전환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압력 가운데 있으며, 전환교육 중 직업교육에 연구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초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3편(6.12%)이 존재하나 이것도 초·중학생과 초·중등부 담임, 초·중·고 교사를 중복 대상으로 하는 연구(박정식, 2007; 조인수, 유정희, 2007; 조인수, 송정선, 2009)로,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 관련 연구에서 실질적으로 초등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와 같이 볼 때 조기 전환에 관련된 연구가 너무 부족한 실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전환교육은 청소년기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전환교육은 전생애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배성직, Clark (2004)의 주장이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에 진학한 장애학생은 고등학교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되도록 조기에 중등이후의 생활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서 개인학생에 대한 일련의 전환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개인학생에 대한 개별화전환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박승희, 2006). 중등부에 대한 연구도 전공과와 고등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18.92%)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적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기부터 학교 졸업 후의 삶의 질을 고려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전환교육을 이루기 위한 연구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겠다.

2. 제언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환교육 연구들의 분석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의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방법의 확장이 요구된다. 실태 및 개선방향, 인식(수준)을 밝히는 것과 같이 현장의 현상과 문제점을 연구자의 분석틀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는 조사연구와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모색하는 실험연구 이외에도 질적 연구와 같이 현장의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연구, 이론적·실천적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와 학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대상 유형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대상에 포함된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활성화가 시급하고, 나아가 가족구성원과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기 전환을 고려한 전환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지적장애의 특성상 기술 습득이 느리고, 반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더 일찍 전환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인기 삶을 의식한 생애주기별 교육의 관점에서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지적장애 특수학교의 초등부 학생을 위한 다양한 전환교육 연구가 많이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넷째, 분리환경이라는 제한점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의 전환교육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적장애학생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직업생활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역사회경험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일반사업체와의 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김남진, 박재국(2007) 특수교육 학술지를 통해 본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동향과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41(4), 215-234.

김동일, 김언아(2003) 우리나라 전환교육 연구의 동향과 전망. **특수교육연구**, 10(1), 33-54.

김우리, 연준모, 고혜정(2014) 특수교육보조원 연구 동향: 2004년 보조원제 도입과 그 이후. **지적장애연구**, 16(1), 413-435.

박승희(2001) 한국 특수학교의 정체성과 역할에서의 새로운 선택. **특수교육학연구**, 36(1), 1-28.

40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4호)

- 박승희(2006) **중등특수교육의 정체성과 역할**. 2006년 동계교육 자료집(pp. 3-24).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 박희찬, 정민호(2005a) 전환교육의 관점에서 본 정신지체특수학교 직업교육 방향. **정신지체연구**, 7, 35-55.
- 박희찬, 정민호(2005b) 정신지체특수학교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교사참조요목 개발. **특수교육연구**, 12(1), 283-304.
- 박희찬, 정민호, 김기석(2005) 정신지체특수학교 직업교육혁신을 위한 교사참조요목의 적용 방안. **특수아동교육연구**, 7(3), 221-246.
- 배성직, Clark, G.(2004) 우리나라 전환교육 평가 연구들의 경향과 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3), 265-284.
- 성태제(2007)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학지사.
- 송소현, 유애란(2011) 정신지체·자폐성장애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1990~2000년까지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3(2), 221-248.
- 이숙향(2010) 국내 중등 통합교육 연구의 동향 및 향후 과제 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339-369.
- 정은혜(2014) 국내 예비특수교사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3), 47-71.
- 조분래(2006)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환교육 교사의 직무수행능력 기준 개발**.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조인수, 전보성(2007) 국내 전환교육에 관한 문헌연구 고찰: -1998년~2007년의 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정신지체연구**, 9(3), 157-176.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0)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 방안.
- 황보순, 강민채, 박승철(2008)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직업개발연구**, 18(2), 27-44.
- Creswell, J. W.(2010) **연구설계: 정성연구, 정량연구 및 혼합연구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 교우사. (원출판년도 2003)
- Will, M. (1986). Educating children with learning problems: A shared responsibility. *Exceptional Children*, 52, 411-415.

분석논문

- 강영심, 정현지, 박지운(2014) 지적장애 특수학교 직업수업 실태와 직업담당교사의 인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3), 315-332.
- 강혜경, 김정효, 이경순(2011)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문제중심학습이 정신지체 고등학생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및 중재 교사의 경험. **특수교육**, 10(3), 143-175.
- 김남순, 김경신(2006) 정신지체학교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실태 분석. **정신지체연구**, 8(3), 243-259.

- 김영준, 강경숙(2012) 사회교과 통합 전환교육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식당이용기술 수행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3), 1-36.
- 김영준, 김진호(2011) 지적장애 고등학생의 성인생활을 위한 미래계획 사정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들의 인식. **지적장애연구**, 13(2), 29-54.
- 김진호(2004) 충남지역 정신지체특수학교 학부모들의 현장실습훈련과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정신지체연구**, 6, 1-16.
- 김진호(2006) 충남지역 정신지체특수학교 교사들의 지역사회 현장실습훈련에 대한 인식. **정신지체연구**, 8(1), 217-231.
- 김창호(2012) 자기결정 학습모형(SDLMI)이 정신지체 학생의 과제 일반화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7(2), 47-67.
- 김창호, 백은희(2011) 자기결정 학습모형(SDLMI)에 기초한 직업훈련이 정신지체 전공과 학생의 작업 수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6(1), 125-148.
- 문상중, 김영일(2005)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정신지체청소년의 원예작업 수행능력과 손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2), 117-136.
- 박남숙, 최국환(2004) 정신지체학교 고등부 다운증학생의 직업흥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연구**, 11(2), 271-285.
- 박석돈, 안은경(2005) 정신지체 특수학교 직업담당교사의 직무만족도 연구. **직업재활연구**, 15(1), 139-160.
- 박성우, 김창호(2003) 정신지체 학생의 성인기 전환을 위한 전환계획과 자기 결정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수준 비교. **특수교육연구**, 10(1), 169-192.
- 박승탁(2000) 전환교육활동이 정신지체아의 직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신지체연구**, 2, 159-171.
- 박영근(2014) 전환교육 프로그램에 기반한 지적장애 특수학교 중등교육 프로그램 질 분석: 혼합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2), 69-90.
- 박영근, 조인수, John L. Hosp(2013) 지적장애학생의 취업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주요기술 관련 특수교사 인식. **재활복지**, 17(4), 245-265.
- 박영근, John L. Hosp(2014) 전환교육 수행에 따른 어려움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교사 인식: 혼합 연구. **지적장애연구**, 16(1), 219-243.
- 박영근, 박경란(2014) 전환교육 과정에서 가족참여의 중요성과 참여율 증진을 위한 교사의 역할: 혼합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4), 439-460.
- 박은희, 조인수(2012) 지적장애특수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결과중심전환교육 최상의 실천 사항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1), 93-122.
- 박정식(2007) 정신지체학생의 여가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정신지체연구**, 9(4), 161-182.
- 박희찬(2010) 정신지체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직업교육의 체계 변천. **특수아동교육연구**, 12(3), 1-26.
- 박희찬, 정민호(2005) 전환교육의 관점에서 본 정신지체특수학교 직업교육 방향. **정신지체연구**, 7, 35-55.
- 박희찬, 정민호(2005) 정신지체특수학교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교사참조요목 개발. **특수교육연구**, 12(1), 283-304.

406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4호)

- 박희찬, 정민호, 김기석(2005) 정신지체특수학교 직업교육혁신을 위한 교사참조요목의 적용 방안. **특수아동교육연구**, 7(3), 221-246.
- 송정은(2000) 정신지체학교의 직업교육 실태와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정신지체연구**, 2, 215-231.
- 송정은, 여광웅, 이영철(2004) 원예치료가 정신지체학생의 작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3), 21-40.
- 신민정, 이한열(2014) 정신지체 특수학교 직업교사의 전문수행능력에 대한 인식. **특수교육연구**, 21(2), 242-264.
- 오영석, 이윤우, 박원희(2008) 산학협력 중심의 직업교육이 정신지체 전공과 학생의 직업 능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2(4), 121-142.
- 우정환, 이희광(2009) TIE 활용 직업교육이 정신지체학생의 직업준비기능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1), 159-180.
- 이근용, 박정식(2006) 발달장애학교의 전환교육 실천수준. **정신지체연구**, 8(3), 221-241.
- 이상훈(2007) 정신지체 특수학교 직업교육과 직업특수교사 양성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7(2), 163-185.
- 이상훈, 허석(2004) 정신지체 특수학교 고등부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4(2), 169-196.
- 이진주, 홍정숙(2011) 정신지체 특수학교 직업담당교사의 직업교과서 활용 실태. **특수아동교육연구**, 13(1), 125-146.
- 이화영, 이승희(2010)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변화. **지적장애연구**, 12(2), 233-252.
- 임예지, 김호연(2012) 정신지체 특수학교 직업과 교육과정 분석-장애인 고용 실태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장애와 고용**, 22(2), 91-120.
- 임지혜, 한경근(2009)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공과 교육과정에서의 학생수준 및 지역사회 특성 반영 조사 연구. **지적장애연구**, 11(4), 1-33.
- 전보성(2007) 정신지체 특수학교 고등부 전환교육 실태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511-531.
- 전보성(2009) 정신지체 특수학교 지원고용 인식수준. **지적장애연구**, 11(4), 137-159.
- 정윤지, 백은희(2012) 자기결정 학습모형에 기초한 직업훈련이 정신지체학생의 커피 만들기 작업 수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6(4), 29-48.
- 정인실, 박희찬(2009) 정신지체 특수학교 직업평가 실태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1(4), 141-159.
- 조인수(2001) 전환교육프로그램적용이 발달지체인의 직업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5(4), 199-219.
- 조인수(2002) 생활중심 전환교육활동이 정신지체아의 직업적응기술에 미치는 효과. **정신지체연구**, 4, 23-50.
- 조인수(2005)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전환교육 실천 사항에 대한 실행 수준.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455-479.

- 조인수, 도금숙, 전보성(2001)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공과 및 전환교육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1), 111-145.
- 조인수, 류현주(2003) 여가중심 전환교육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대인관계기술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8(2), 251-273.
- 조인수, 류현주(2004) 여가활동 중심의 전환교육이 정신지체학생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9(1), 257-286.
- 조인수, 박은희(2011) 결과중심전환교육 최상의 실천사항에 대한 지적장애특수학교 교사의 인식수준. **지적장애연구**, 13(4), 17-40.
- 조인수, 유정희(2007) 생활자립훈련중심 전환교육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사회적 적응기술에 미치는 효과. **정신지체연구**, 9(4), 1-17.
- 조인수, 송정선(2009) 전환사정 실천사항에 대한 정신지체학교 교사의 인식 수준. **특수교육 재활과학연구**, 48(1), 133-152.
- 조인수, 최학섭(2005) 정신지체 특수학교 직업지도 교사의 전환교육 수행능력 인식수준.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3), 47-68.
- 황보순, 강민채, 박승철(2008)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직업재활연구**, 18(2), 27-44.

Analysis of Trends of Studies on Transition in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Hong, Jeong suk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papers on transition in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ublished on domestic specialized academic journals to identify the trend of studies on the subjects and present the directions of future studies. To this end, a total of 51 related papers published on special education-related academic journals and some occupational rehabilitation-related academic journal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se papers were classified by year · journal, study method, type of study subjects, number of study subjects, and type of school leve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related studies have been steadily conducted from 2000, the largest number of papers was published on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s, and the studies were mainly conducted through survey studies and experimental studies. Among the study subjects, actual conditions and directions of improvement were the most frequent followed by teaching methods and the study subjects were limited mainly to teachers and students. Finally, through analysis of types by school level, it could be seen that the studies were mainly conducted by majoring departments and high school groups. Based on the study results as mentioned above, the directions of future studies related to transitional education in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ransition, analysis of trends of studies

논문 접수: 2015. 11. 02 심사 시작: 2015. 11. 10 게재 확정: 2015. 12. 22